

스포츠와 희망나눔 “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가슴이 따뜻하네요...”



김광원

한국스포츠교육희망나눔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체육교육학 전공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스포츠마케팅에 관심
kwkim@ksportshare.com

운동선수에게 은퇴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들을 낙오자라는 인식으로 대하고 있어 은퇴하는 선수나 주위 사람들 모두가 불편한 것 같다.

나는 2012~13시즌을 마치며 은퇴를 했다. 정확히 말하면 31살 겨울을 맞이할 때 은퇴를 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에 농구를 시작했고 중학생 때 담임선생님을 보면서 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다. 어린 시절 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중학교에 들어와서도 중상위권이었던 학교성적 때문에 성적표에 운동을 그만두라고 적어주신 담임선생님은 틈이 나는 대로 체육관에 찾아오셔서 엉덩이로 나를 밀쳐내며 “이렇게 몸싸움을 하란 말이야” 하시며 나를 아껴주셨다. 이런 담임선생님을 보며 나도 누군가의 앞날을 적극적으로 돕는 선생님을 꿈꾸게 되었다. 고등학생 시절 아시아 청소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며 유망주로서 꽃길을 걷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에는 김주성이라는 대선배와 만나면서 선수로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대학선발, 유니버시아드 대표에 선발되며 선수

로서 많은 기회를 얻었다. 2005년 KBL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뽑혔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과욕이 부상을 불러왔다. 대학 시절부터 허리에 부상을 갖고 있던 나는 첫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상으로 오른쪽 다리의 신경이 끊어지는 운동선수로서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첫 시즌을 치르지도 못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고, 2009년 1월 9일 소집해제 후 늦은 데뷔전을 치렀다.

안양 SBS 스타즈에서 2005년 프로 무대에 발을 딛은지 8년 6시즌을 뛰고, 은퇴하게 되었다. 은퇴할 당시에는 몸의 상태가 선수 생활을 한 20여 년 중 가장 좋았다. 신경을 다치며 손발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점프도 좋았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지만 선수구성이나 계약 등의 문제로 은퇴를 하게 되었고 나는 미련 없이 내 꿈을 향해 은퇴를 결심했다. 은퇴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녁 둘째 딸이 태어났다. 제2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한 일은 KGC인삼공사 농구단의 유소년교실인 홍이장군 농구교실의 코치였다. 홍이장군 농구교실은 대학 선배님과 초등학교 시절의 친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듬해 3월 첫 수입은 130만 원 가량이었다. 가장의 월급으로는 많이 부족했다. 은퇴 후 프로구단의 코치로 가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은퇴 선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 같다. 물론 운동선수들은 나이에 비해 많은 금액의 연봉을 받는다. 그러나 타 프로종목과 달리 농구에는 계약금이 없고 선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생각보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할 여유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나는 가장으로서 또 제2의 삶을 위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만의 몇 가지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아침 9시 이후에는 집에 있지 않는다. 둘째, 꿈이었던 교사를 고집하지 않는다. 셋째, 마흔에는 꼭 안정된다.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이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었다. 일이 없어도 9시 이전에 아이들과 함께(유치원과 학교를 등교시킴) 집을 나섰다. 요즘은 시간이 모자라지만 예전에는 일이 없어도 나가서 친구를 만나러 갔다. 또 교사라는 꿈은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이 아닌 선생님 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란 의미로 바뀌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바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은퇴 2년 차, 방과 후 교실과 한기범 희망나눔의 공익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몸을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을 했다. 지금 하는 일들을 은퇴선수들이 모여 한다면 어떨까? 현재 추세에 맞춰 사회적 기업은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었다. 오로지 농구밖에 몰랐던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조금씩 지쳐가며 나태해져 가는 여름날 '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창업 지원센터'의 창업지원 교육을 이환우 감독님(부천 KEB하나은행)의 권유로 여섯 줄짜리의, 지금보면 말도 안 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게 되면서 교육생이 되고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으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합쳐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결심하게 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조합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그런 형태의 조합이 은퇴선수 출신들이 모여 선수 시절 사회와 팬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이익을 얻어 생활하는 구조로 구성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아이템의 첫 이름은 ‘시너지 메이커’였다. ‘시너지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경희대학교 스포츠 창업지원센터’의 2015년 우수아이템으로 선정되고 한국스포츠개발원 심사에서도 선정되어 2016년 보육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도 독학하게 되고, 프리젠테이션도 처음으로 하게 되는 등 정말 값진 경험을 하였다.

한국스포츠교육희망나눔사회적 협동조합

그 후 ‘시너지 메이커’는 ‘한국스포츠교육희망나눔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재 명명하였다. 온전히 은퇴선수로만 구성되었다. 조합 설립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 사업 경험이 없었던 우리는 이사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조직은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이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배워야 했다. 이사장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스포츠인이 아닌 진짜 필요한 우리 중에 하기로 하고, 자본도 우리 형편에 맞게, 몸으로 하나하나 배우며 모든 것을 느리지만 피부로 배워나갔다. 당장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있었으나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방법이나 앞을 내다보는 큰 그림까지는 못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힘들었고 대한체육회의 첫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도 우리 모두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2016년 10월 3일 대한체육회의 행복나눔교실 은퇴선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한 달 내내 밤을 새우며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한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준비할 수 있는 한 달가량의 시간은 설립된 지 5개월 되고 행사 한 번 치러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정말 짧은 시간이었고, 참가자 모집, 숙소 선정, 캠프에 함께 할 은퇴선수를 선정하는 일까지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추석이 지나 본격적으로 2박 3일 캠프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선수 시절 몸담았던 구단에도 찾아가고, 불이 다 꺼진 운동장에도 가보고 선수 시절 상상도 못





했던 2주일이 지나며 캠프의 퍼즐이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했다. 밤새 검색하여 찾은 남양주의 숙소, 다문화가정을 돕고 스포츠인들을 믿고 후원해 주시는 신부님, 불 꺼진 운동장 컨테이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남양주 야구협회장님, 모두가 우리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사고 없이 치러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기에 10월 1일 우리는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스포츠로 희망을 전달하는 SDG캠프’를 개최할 수 있었다.

SDG캠프란? ‘SEE DO GAME’의 약자로 스포츠를 보고 체험하고 경기로 즐기는 스포츠캠프로 구성된 우리의 아이디어 프로그램이다. 프로경기장의 분위기나 가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선수들을 실제로 보고, 그들에게 배우고 함께 즐기는 것만큼 스포츠를 쉽게 익히고, 가르치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캠프 첫날 부실한 기획은 우리를 발로 뛰게 했다. 의정부, 남양주, 아산, 서울 각지에서 출발하기로 한 버스들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버스 기사가 약속 장소를 못 찾고, 인솔하기로 한 자원봉사자가 연락이 안 되고 전화는 불이 나는 우여곡절 끝에 캠프는 시작되었다. 둘째 날 새벽부터 내린 비는 장대 같이 왔고, 야외에서 계획 하고 있던 DO(전문선수와 함께하는 축구체험과 야구체험, 골프체험)는 비와 함께 흘러내려 가는 듯했으나 실내야구장의 극적인 섭외와 캠프장 중앙의 농구장을 활용해 참가자들의 행복한 SDG캠프를 이어 갔었다.

우리는 은퇴선수들의 재사회화에 있어서 교육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처음 창립식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발달장애 아동 농구단 창단식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러 종목의 은퇴선수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쉽지 않았던 우리는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퇴선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다. 한 달간 잠도 못 자고 준비하여 치러진 2박 3일의 캠프 기간동안 따뜻함과 선수 시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끼기 충분한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 우리들은 첫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찾는다. 둘째, 은퇴선수 교육을 통해 재 사회화를 도우며, 은퇴선수 각각의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은퇴선수의 일자리를 만든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코트나 필드에 있을 때 관중들이 손뼉 쳐주고



응원 받았던 그 가치를 코트를 떠나있는, 지금 우리 주위 이웃들과 함께하며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라는 생각이다.

한국스포츠교육희망나눔사회적 협동조합은 2016년 첫 사업을 계기로 2017년도에는 데상트 스포츠재단과 함께하는 ‘발달 장애인 농구교실SC’, 서울시 혁신형사업인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스포츠멘토링클럽 TURN-UP 스포츠교실’, 한국여자농구연맹과 함께하는 ‘여학생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여학생 농구클럽 EFG’를 수행하면서 은퇴선수의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며 주위의 많은 분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은퇴선수들이 모여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비록 서툴고 세련되지 못하며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은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은퇴 후 사회로 나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열심히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우리 은퇴선수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스포츠교육희망나눔사회적 협동조합의 바람과 희망이다.

우리는 또 다른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어떤 그림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가치를 알고자 찾아 헤매고 있으며, 우

리의 인생에 있어 다른 이들과 다르게 너무나 빨리 찾아온 ‘은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경주를 하고 있다. 남들이 은퇴가 패배 또는 포기라는 단어의 개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을 두 번이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찾는다. 어려서부터 운동 빼고는 한 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움츠러 들려고 할 때 남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또는 경험조차 할 수 없는 값진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을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성장하고 커 나가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 우리들이 은퇴운동선수들이다.”

은퇴운동선수들의 인생을 말함에 있어 우리들은 한번 자라서 싹둑 베어버린 나무가 아닌 눈에 벼를 심어서 한번 추수하고 또 다른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이모작의 인생이 주어졌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잠재적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개발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고자 한다. 링컨의 연설에서와 같이 우리는 우리 은퇴선수의, 우리 은퇴선수에 의한, 우리 은퇴선수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희망과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고 전진하는 변치 않는 공동체로 계속 남아있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모작의 삶의 그림 속에서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